코로나 장기화… 대학가·관광지 편의점 매출 '뚝' 울상

7~8월 대학가점포 매출 15% 하락
본사서 전기세 등 상생지원 나섰지만
일부 점주들 "본사지원 역부족" 토로
추경서 연매출 4억 이상 점포 제외

#.14일 오전 인하대학교 후문에 위치한 주요 편의점들은 한산한 분위기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는 도시락, 김밥 등이 아침 일찍 품절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편의점을 찾는 발길도 뜸해졌다.

편의점 직원은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방문객은 크게 감소했다"며 "다만, 학교 근처에 원룸이 있어서 자취생들이 간간히 찾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점심시간 홍대입구 거리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젊음의 거리'로 불리는 번화가에는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빠르게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홍대인근 거리 모습.

홍대거리 인근 편의점 모습. /손진영 기자 son@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편의점의 올해 7~8월 대학가 점포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1%~15% 감소했다. 유흥가나 사람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 위치한 편의점은 8% 가량 매출이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대학이 화상강의 등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결과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유원지나 유흥가, 스포츠 센터 등 집합 제한 대상 시설이 즐비한 곳에 위치한 편의점 매출도 감소했다.

반면,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으로 집에 머무는 소비자가 늘면서 같은 기간 오피스 상권과 주거지 상권 매출은 약 7~17% 증가했다.

편의점 본사들은 각사의 상생 지원제도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에 제품 폐기로 인한 비용과 전기세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일부 점주들은 본사 지원만으로는 코로나19의 피해를 극복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편의점업계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에서 제외됐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는 총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집합금지업종, 수도권 집합제한업종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 가맹점 중에서 연매출 4억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은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한 일률적이고 불공평한 기준 때문에 편의점 가맹점 대부분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을 위해 지원 기준의 보완과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편의점은 세금 비율이 80%에 달하는 담배 매출 때문에 연 매출이 대부분 4억이 넘고, 이로 인해 심각한 매출 감소의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이 코로나19 수혜업종으로 비치고 있으나 대부분의 통계는 가맹본부 기준의 매출이고 가맹점포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스포츠 경기장, 대학, 유흥가 밀접지역, 극장, 호텔 등 집합이 금지 및 제한된 업종에 부속한 시설의 내·외부의 편의점(특수 편의점)은 매달 수천만원의 적자를 보는 등 도산 또는 파산 위기에 몰려 있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홍남기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몰 7곳서 국내상품 판매"

대외경제장관회의 '中企지원 방안'
"온라인몰 연계 시스템 신설할 것"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증가를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국내 기업 대상 해외 상계관세 조사 증가에 대응하는 TF(태스크포스)도 신설해 대응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비대면·온라인 트렌드 활용 중소기업 수출 지원성과 및 향후과제'를 안건으로 올려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아마존 등 7개 해외 유명 온라인몰과 협업을 통해 국내 쇼핑몰 인기상품을 손쉽게 해외몰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2분기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했지만, 온라인 수출액은 128.9% 증가하는 등 비대면·온라인 수출이 중소기업 수출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대기업의 현지 유통망·네트워크와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 채널을 연계하는 등 온라인-오프라인 간 결합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 제품 홍보를 위해 현지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과 연계를 지원하겠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출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분석, 유망시장별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 제품 홍보를 위해 현지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채널과 연계를 지원하겠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출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분석, 유망시장별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와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조사대상 품목·프로그램·기업 등 조사범위 확대뿐 아니라 최근에는 환율 저평가와 같은 새로운 상계관세 조사도 도입되고 있으며 미국 외 인도 등도 상계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기업부담이 점차 가중될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부처 합동 '상계관세 대응 TF' 신설 및 민관 공동대응을 통해 협업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규제 민관대응역량 제고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법률 자문 지원도 올해 15억원에서 내년 20억원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용수 기자 hys@

KT 모델들이 14일부터 통신사에 관계 없이 110종의 게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구독형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 '게임박스'를 소개하고 있다. /KT

'게임박스' 출시 한달 KT, 고객 4만명 돌파 타 통신사에도 서비스

KT가 지난달 출시한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 '게임박스(GameBox)'가 출시 한달 만에 4만명을 돌파했으며, 14일부터 타 통신사 고객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게임박스는 월 4950원의 이용료만 내면 정식 구매가격이 240만원(글로벌 게임 마켓 스팀 기준)에 달하는 110여 종의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다. KT의 클라우드 서버에서 게임을 구동하는 스트리밍 방식을 활용해 스마트폰만 있으면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있다.

KT는 통신사에 관계 없이 누구나 쉽게 게임박스를 접할 수 있도록 간편 가입 및 로그인 체계를 도입했다. 카카오톡, 네이버, 구글, PASS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10종의 추천게임을 무제한으로 이용하거나 유료게임을 5분간 체험 플레이할 수 있는 무료 혜택도 제공한다.

KT는 연말까지 200여 종의 게임을 순차적으로 론칭하는 등 신규 라인업 강화로 게임 마니아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KT는 월정액 가입자를 대상으로 게임패드를 제공하는 경품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채윤정 시전문기자 echo@

"운전자 위치 상관없이 '디지털키'로 대리운전 하세요"

현대자동차, 픽업앤대리 등 선봬
내달 제주도 제외 전국에 확대

현대자동차는 디지털키를 기반으로 공간 제약을 극복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다.

현대차는 디지털키를 통해 운전자의 위치와 상관없이 대리운전과 차량 배송을 요청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가 새롭게 선보인 이번 서비스는 차량과 고객의 위치가 다르더라도 디지털키를 활용, 전문 업체가 차량을 픽업하고 대리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한 '픽업앤대리' 서비스와, 고객이 동승할 필요 없이 디지털키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차량을 배송하는 '픽업앤딜리버리' 서비스로 이루어졌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출고된 차량 중 디지털키 옵션을 선택한 고객이 70%에 달해 차량 출입, 시동 등의 기본 기능에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주차장·백화점·세차 연계 서비스 등으로도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서비스는 현대차 디지털키 회원 가입 후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첫 결제시 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 지역에 한해 서비스가 가능하며 10월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디지털키를 선택해주신 많은 고객 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 같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대차는 커넥티드 기술 발전에 걸맞은 다양하고 획기적인 서비스를 마련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디지털키.

/양성운 기자 ysw@